

일과 직업의 사회학

직업의 구조와 분류

김현우, PhD¹

¹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

March 9, 2022



진행 순서

- 1 기본 개념들
- 2 직업발달의 역사
- 3 고용의 구조와 측정

기본 개념들

기본 개념들

가장 먼저 **일(work)**과 **직업(occupation)**을 구분하자.

- 일은 생산활동이라는 점에서 직업보다 넓은 개념이다.
- 경제적 기능 외에도 도덕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(유홍준 외 2016: 18; 강일규 외 2008: 96).
- 사회적 소속감(social belonging), 인정(recognition), 위세(prestige) 같은 것들은 경제학적 관점과 다른 중요한 사회학적 측면이다.
- e.g., 퇴근 후 전도사 역할 수행. 전도사가 직업은 아니지만 일이 된다.



기본 개념들

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,

- 직업(occupation)은 유사한 직무(jobs)의 집합이다.
- 직무(jobs)란 “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할 일련의 업무(tasks)와 과업(duties)”이다.
- 직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(1) 계속성, (2) 경제성, (3) 윤리성/사회성이 성립해야 한다(박강석 2018: 234).



기본 개념들

연구자에 따라서 용어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표준적인 구분은 있다.

- Hauser and Warren (1997: 180)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:
“A job is a specific and sometimes unique bundle of activities carried out by a person in the expectation of economic remuneration. An occupation is an abstract category used to group and classify similar jobs.”
- 여기서는 occupation이 job보다 추상적인 범주에 속한다.
-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정의와도 일관된다.
- 그런데 유홍준 외(2016: 21)과는 조금 다르다. 교과서에서는 직무(job)와 일역할(work role)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고, 직무/일역할에 경제적 반대급부가 없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한다.

Hauser, Robert M. and John Robert Warren. 1997. “Socioeconomic Indexes for Occupations: A Review, Update, and Critique.” *Sociological Methodology* 27: 177-298.



기본 개념들

소명, 전문직, 사업은 개념상 조금씩 구분된다.

- 특히 소명(vocation)은 “자기 스스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종류의 일”로 정의된다.
- 감정적인 몰입이 특징이다. 우리는 나중에 이러한 일을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도구를 학습할 것이다.
- 어원은 라틴어의 vocare. 부르다(call). 곧 소명(calling)이다.
- Max Weber는 <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>에서 금욕적 소명 의식의 확산이 정신으로서 자본주의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했다.



기본 개념들

-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토대로 업무와 과업 수행에 있어 높은 자율성이 보장되었으며 고객에 대해 권위를 행사하는 직업을 **전문직(profession)**이라고 부른다.
- 특히 금전적 이득의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을 **사업(business)**이라고 구분한다.
- **경력(career)**은 생애에 걸친 진로 추구의 의미를 강조한다. 일생에 걸쳐 행해지는 모든 직업적 활동을 포함한다(강일규 외 2008: 98-101).



기본 개념들

개념의 차이를 넘어 인식의 차이가 될 수도 있다.

-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비즈니스(business)라고 본다.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.
-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경력(career)로 인식한다. 이 직급에서 더 나은 직급으로 이동하는 것이다.
-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을 소명(vocation)으로 인식한다. 이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간다.
-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것.



기본 개념들

직업의 위상은 독특한 문화적 산물이다.

- 플라톤은 <국가론>에서 국민을 지배자(정치인; 지혜), 전사(군인; 용기), 시민(생산자; 절제)로 나누어 계급에 따르는 것이 **덕성(virtue)**이라고 보았다.
- 그에 따르면 (자유롭게 계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) 계급에 걸맞는 본연의 능력(혹은 직업윤리)을 고양하는 것이 덕성이다. 서양에서 직업(occupation)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,
- 동양에서 직(職)은 생래적으로 부여받은 직분과 사회적 지위, 업(業)은 스스로 쌓아가는 업적이다(유홍준 외 2016; 76-77).
- 그러나 직업은 업보처럼 운명적으로 피해갈 수 없었으며 구속된 사회로서의 특수성을 반영한다. 사농공상의 위계는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.



직업발달의 역사

직업발달의 역사

교과서에 따라 아주 추상적인 형태로 직업발달의 역사를 간략히 짚는다.

- 수렵채취사회-원예농업사회-농경사회-봉건사회-상업자본주의 사회-산업사회-탈산업사회(유홍준 외 2016)
- 사회학적으로 특히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이론적 키워드에 주목하자.
- 첫째, 분업(division of labor)
- 둘째, 이윤추구 동기(profit-seeking motivation)
- 셋째, 업장 통제(workplace control)



직업발달의 역사

뒤르켐은 프랑스 혁명 이후 사회변동 속에서 분업과 연대의 변화가 사회의 조직원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주목하였다.

- 프랑스 2월 혁명(1848) 이후 뒤르켐(1858-1917)은 프랑스사회가 도덕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였다.
- 전통사회는 붕괴하면서 기존 윤리는 무너지고 있는데 산업사회의 새로운 윤리는 도래하지 않았다(normlessness; **anomie**).
- **기계적 연대(mechanical solidarity)**는 사회분화의 정도가 낮고 강한 집합의식과 높은 규범적 통일성을 지녔을 때만 가능하다.
- 현대사회에서 대규모의 고도분업 사회에서는 **유기적 연대(organic solidarity)**가 나타난다.
- 유기적 연대 사회는 기계적 연대 사회보다 더 깊게 얽혀있지만 더 개인적이다.



직업발달의 역사

- Durkheim은 근대사회의 병리를 개혁하는 방안이 바로 직업집단에 있다고 보았다.
- 유기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적 문화적 논리는 직업집단이 제공할 수 있다.
- 직업집단은 파시즘에 귀속되거나 이기주의로 파편화되지 않는 중도적 대안이다.
- 직업집단은 공익과 전문적 지식, 흥미로 결속된 집단이며 산업사회의 규율과 권위를 형성하여 새로운 도덕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았다.
- 사실 **길드 사회주의(guild socialism)**라는 발상은 당시 많은 사회개량가들 사이에 유행했다. 오늘날 **협동조합**이 그 유산을 잇고 있다.

Durkheim, Emile. [1893]1984.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. New York, NY: Free Press.



직업발달의 역사

사실 분업은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분야였다.

- Adam Smith는 <국부론> 첫 장에서 편제조업에서의 분업이 낳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찰하였다. 무엇이 분업을 가져오고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는가도 살펴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.
- 사실 Ferdinand Toennies도 Gemeinschaft에서 Gesellschaft로의 사회변동을 설명하면서 분업이 핵심 동력이라고 보았다.
- 사회학적으로 Durkheim의 주목할 만한 점은 분업이 **비물질적 사회적 사실**의 변동과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고찰한 점이다.



직업발달의 역사

이윤추구의 동기는 몰역사적으로 종종 설명되지만 그렇지 않다.

- (나중에 자세히 다루지만) 생산적 · 경제적 활동은 본질적으로 천한 것으로 여겨진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다(박강석 2018: 100-105).
- 고대에 부는 정복과 약탈, 지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산은 노예(비시민), 여성의 것으로 여겨졌다. 주인/영웅은 약탈하지 생산하지 않는다(Thorstein Veblen)
- 중세 농촌의 전형적인 삶은 장원(manor), 중세 도시의 전형적인 삶은 길드(guild)였다. 둘 다 **살림살이(subsistence)**가 영리보다 중요했다. 고도의 관습과 규제가 질서와 안정을 추구했다.
- 현대 경제학이 상정하는 **경제적 인간(homo economicus)** 관념이 역사적으로 늘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. 오히려 현대가 예외적이다(Karl Polanyi).



직업발달의 역사

직업발달의 역사 작업장 통제 맥락에서 설명되기도 한다.

- 중세 말과 근대 초에 이르러 농민들 사이에 **선대제(putting-out system)**이 자리잡으면서 농한기에 돈벌이를 했다. 하지만 일의 높은 자율성과 게으름, 음주, 도박이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을 막았다.
- 근현대에 이르러 일과 직업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사회혁신은 **시간엄수(time discipline)**였고 이것이 공장제수공업(manufacture) 뿐 아니라 산업자본주의와 근대국가까지도 가능케 하였다(E. P. Thompson).
- 현대 산업자본주의 발달과정에 있어서도 맑스주의 사회학자 Harry Braverman은 **탈숙련화(deskilling)**야말로 가장 강력한 추세라고 지적했다.
- 이 관점에 따르면 직업발달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작업장 통제의 증대와 더불어 노동과정의 자율성은 핵심인력에게만 남겨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.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직업분류는 그 자체로 복잡한 제도의 일부이다.

- 통계청의 <한국표준직업분류>와 한국고용정보원의 <한국고용직업분류>가 세부적인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응하는 통계를 생산한다.
- 이러한 분류체계에는 **비교가능성(comparability)**이 핵심적으로 중요하다. 예컨대 국제노동기구(ILO)의 <국제표준직업분류> 제정에 영향받아 <한국표준직업분류>가 만들어졌다.
-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실업통계는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. 국제적으로 비교불가능한 통계(예컨대 파업통계)나 시계열적으로 비교불가능한 통계(예컨대 범죄통계)도 있다.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직업을 분류하는 기준은 직능수준과 직능유형이 있다.

- 직능수준(skill level)은 종적 차원이고(특히 학력으로 측정), 직능유형(skill specialization)은 횡적 차원이다.
- 통계청의 <한국표준직업분류>는 직능수준을 우선시하여 분류하고,
- 한국고용정보원의 <한국고용직업분류>는 직능유형을 우선시하여 분류한다.
- 그러나 세분류(426개)로 내려가면 두 자료가 연계되어 있다.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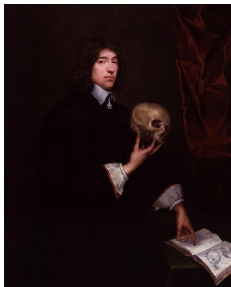
한국표준직업분류	한국고용직업분류
1. 관리자	1. 경영·사무·금융·보험직
2.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	2. 연구직 및 공학기술직
3. 사무 종사자	3. 교육·법률·사회복지·경찰·소방직 및 군인
4. 서비스 종사자	4. 보건·의료직
5. 판매 종사자	5. 예술·디자인·방송·스포츠직
6. 농림·어업 숙련 종사자	6. 미용·여행·숙박·음식·경비·청소직
7.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	7. 영업·판매·운전·운송직
8.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	8. 건설·채굴직
9. 단순노무 종사자	9. 설치·정비·생산직
A. 군인	10. 농림어업직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산업별 및 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 분류를 직종별 분류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.

- 이 고용구조는 사실 중첩될 수 있다(박강석 2018: 235-237). 가령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직종별 고용구조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다.
- 산업별 고용구조를 설명하는 고전이론은 **Petty의 법칙**이다: “농업보다는 제조업이, 제조업보다는 상업/서비스업이 생산성이 높다.”



Sir William Petty (1623-1687)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종사상 지위별 고용구조는 고용된 이의 직장내 지위에 따라 측정된다.

- 크게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된다(유홍준 외 2016: 299-302).
-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, 임시, 일용으로 나뉘고,
-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된다.
-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유독 많아 저생산성이 지적되어 왔다.
- 가족종사자는 한국 · 홍콩 · 이탈리아에서 유독 많다: “믿을 수 있는 것은 가족 뿐?”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고용의 구조와 측정은 (사회과학 전반에서 중요하지만) 특히 노동경제학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.

- 고용상태에 따른 노동인구 분류체계(유홍준 외 2016: 299-302; 유인물)
- 고용률, 취업률, 실업률 개념(유인물)
- **구직단념자** 혹은 실망노동자(discouraged workers)
- 길어지는 구직준비 기간과 늘어나는 사람들
- 고용의 시계열 추이와 **설명되지 않는 취업난**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된다.

- 비정규직 고용동향 시계열을 확인하자(유인물).
- 자본소득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중요한 사회불평등과 계층화의 요인 중 하나이다.
- 200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, COVID-19을 계기로 임시직 비중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다.
-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.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전일제 환산 방식의 중요성을 이해하자.

-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강조되는 통계적 성과와 "일자리를 세려는 시도"는 왜 문제가 될까?
- 전일제 환산(Full-Time Equivalent; FTE) 방식은 왜 쓰이며 기존의 방식과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자(유인물).



고용의 구조와 측정

여성의 고용구조는 특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.

- 여성의 연령별 취업상태를 보면 **경력단절**로 인해 M자형 고용률을 보인다(유인물)
- 여성은 문화적으로 “특정한 직종에 특정한 직무”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. 이것을 이른바 **성별 직종분리(gender segregation)**라고 부른다.
- 이는 다시 **수직적 · 수평적 직종분리**로 나눌 수 있으며, 일반적으로 여성은 저숙련 서비스 직무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.
- 선진국에서도 이 문제는 남아있다. 영국에서도 중장년 여성은 공공부문의 보건 · 사회복지 직종, 그 중에서도 행정과 비서직에 집중되어 있다. 젊은 여성의 경우 서비스 및 판매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(윤수린 2019: 50).

윤수린. 2019. “유자녀 여성의 숙련 수준에 육아정책, 노동정책,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이 미치는 영향: OECD PIAAC 데이터를 중심으로.” 한국사회학 53(4): 45-87.

